GLOBAL
EQUITY

2026. 5. 21.

글로벌주식팀

이영진 Senior Analyst, CFA
youngjin91.lee@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앤스로픽 (Anthropic, 미국 비상장)

폭발하는 매출과 영업 흑자 전망. 치열해지는 IPO 속도전

- 앤스로픽은 신규 내부 재무 전망에서 2분기 높은 매출 성장과 영업 흑자 제시
- 앤스로픽이 9,000억 달러 밸류로 신규 펀딩을 논의하는 사이 오픈AI의 IPO 타임라인은 가속화. 앤스로픽보다 빠른 9월 상장을 목표
- 현시점 프론티어 AI 기업의 초점은 엔터프라이즈 AI 침투. 본격 배포 경쟁을 위한 컴퓨트와 인프라 역량 확보 움직임 지속

▶ 종목 정보

상장 예정일	미정
기업 가치	3,800억 달러(26년 2월)
매출액(ARR 기준)	300억 달러(26년 4월)
국가	US
산업	Software

WHAT'S THE STORY?

폭발하는 매출과 영업 흑자 전망: 앤스로픽의 신규 내부 재무 전망은 2Q 매출 109억 달러(+127% QoQ) 및 영업이익 5억 5,900만 달러. 앤스로픽의 기존 '26년 매출 전망은 180억 달러. 2Q 목표 달성 시 상반기 매출 157억 달러. 엔터프라이즈 AI 도입이 가속화되며 코딩과 에이전틱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앤스로픽의 모델과 제품에 대한 수요 폭발.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앤스로픽의 연 환산 매출은 450억 달러. 반면 오픈AI는 350억 달러. 양 사 간 매출 인식 방법의 차이와 공식적 숫자가 아닌 점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앤스로픽이 오픈AI를 역전하는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 상승.

9,000억 달러 밸류에이션과 IPO 속도전: 앤스로픽은 9,000억 달러 밸류로 300억 달러 규모 신규 펀딩 논의 보도 존재. 2월 시리즈 G 밸류 3,800억 달러 대비 몇 개월 사이 2배 이상 급증. 8,000억 달러 제안을 거절하고 9,000억 달러 제안을 수락한 것에는 오픈AI 밸류를 뛰어넘는 상징성 존재

동시에 IPO 속도전도 치열해지는 상황. 스페이스X S-1 서류 공식 공개에 맞춰 오픈AI 비공개 IPO 신고서 제출 및 9월 상장 계획 보도. 9월은 앤스로픽의 상장 목표 시점 10월(4분기)보다도 빠른 타임라인. 오픈AI 내부 갈등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앤스로픽보다 먼저 상장하겠다는 의지 재확인

엔터프라이즈 AI 확대 전략과 컴퓨트 확보: 현시점 프론티어 AI 기업의 모든 초점은 엔터프라이즈 AI 침투. 이를 위해 컨설팅, SI, PE 네트워크 활용 및 JV 형태의 신규 AI 기업 설립 발표. AI 산업의 경쟁 축도 단순 모델 및 API 제공에서 벗어나 배포 경쟁으로 전환

고객의 실제 환경에서 안정적인 배포, 통합, 운영 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은 컴퓨트와 인프라 역량. 과거 오픈AI 대비 상대적으로 보수적 캐파 전략을 가져갔던 앤스로픽에게 수요 급증 대응을 위한 캐파 확보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

스페이스X S-1 서류에서 공개된 양 사 간 세부 계약 내용에서는 Colossus 1뿐 아니라 2까지 활용하는 내용 포함. 앤스로픽은 '29년 5월까지 월 12.5억 달러를 지급. 총액 400억 달러 이상의 딜. 또한 양 측 모두에게 90일 전 통지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도 특징

폭발하는 매출과 영업 흑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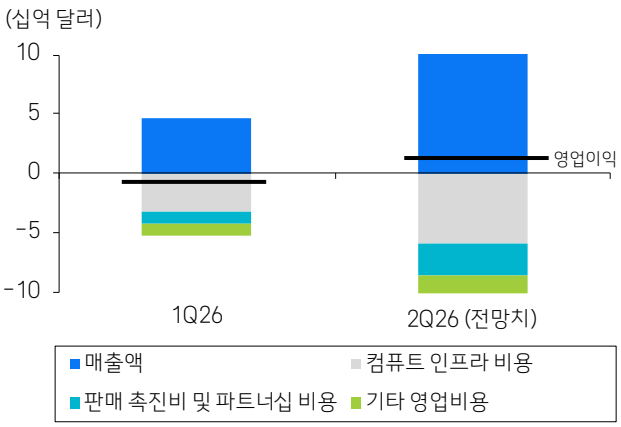
앤스로픽의 내부 재무 전망 관련 신규 보도가 나왔다. 2Q 매출 109억 달러(+127% QoQ, vs 1Q 48억 달러) 성장과 영업이익 5억 5,900만 달러로 첫 분기 영업 흑자를 예상한다는 내용이다. 앤스로픽의 기존 '26년 매출 전망은 180억 달러였다(vs '25년 45억 달러). 2Q 목표 달성 시 상반기에만 매출 157억 달러를 달성한다. 참고로 오픈AI의 '26년 매출 전망이 300억 달러다. 양 사 모두 매출 전망은 상향 조정될 것이다.

엔터프라이즈 AI 도입이 가속화되며 코딩와 에이전틱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앤스로픽의 모델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1Q 기준 연 환산 매출과 사용량은 80배 성장했고, 이는 계획이었던 10배 성장을 넘는 수준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향후 높은 수요로 인한 막대한 컴퓨팅 지출 확대는 이익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추론 인프라 마진 개선세는 긍정적 요인이다. 토큰 생산 원가는 하락하는 반면 토큰의 경제적 가치는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된 분기 영업이익은 컴퓨트 및 인프라 비용, 판매, 마케팅 및 파트너십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주식 보상 비용(SBC)은 제외한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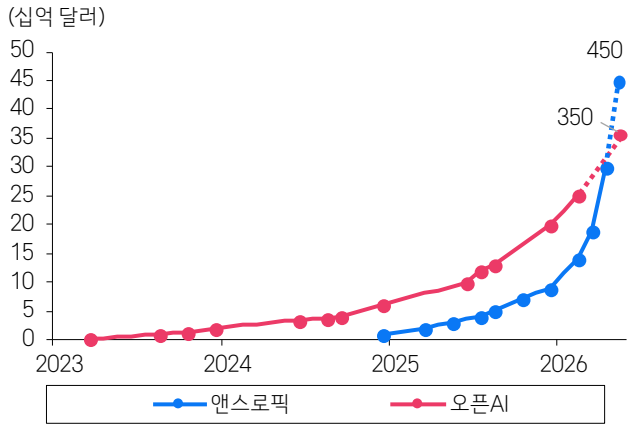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앤스로픽의 연 환산 매출(ARR)은 440억 달러~450억 달러 규모다. 반면 오픈AI는 350억 달러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양 사 간 매출 인식 방법에서 차이가 존재(오픈AI는 MS Azure 기반 매출을 Net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언론 보도 내용으로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다(공식적으로는 앤스로픽 300억 달러, 4월 초 vs 오픈AI 250억 달러, 2월 말). 다만 동일 기준으로도 앤스로픽이 오픈AI를 역전하는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다.

앤스로픽의 1Q26 및 2Q26 재무 전망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앤스로픽과 오픈AI ARR 추이



참고: 450억 달러 및 350억 달러는 언론 보도 및 VC 업계 인터뷰 기반 역산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9,000억 달러 밸류에이션 펀딩과 IPO 속도전

높은 성장을 기반으로 앤스로픽의 밸류에이션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4분기 IPO를 계획하고 있지만, 상장에 앞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4월 중순 다수의 VC로부터 8,000억 달러 밸류에이션 기준 신규 투자 제안을 받았으나, 회사 측에서 투자 제안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후 5월에는 밸류에이션이 추가 상향되어 9,000억 달러 기준(Pre Money 기준)으로 300억 달러 신규 펀딩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월 시리즈G 밸류에이션이 3,800억 달러(Post Money 기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몇 개월 사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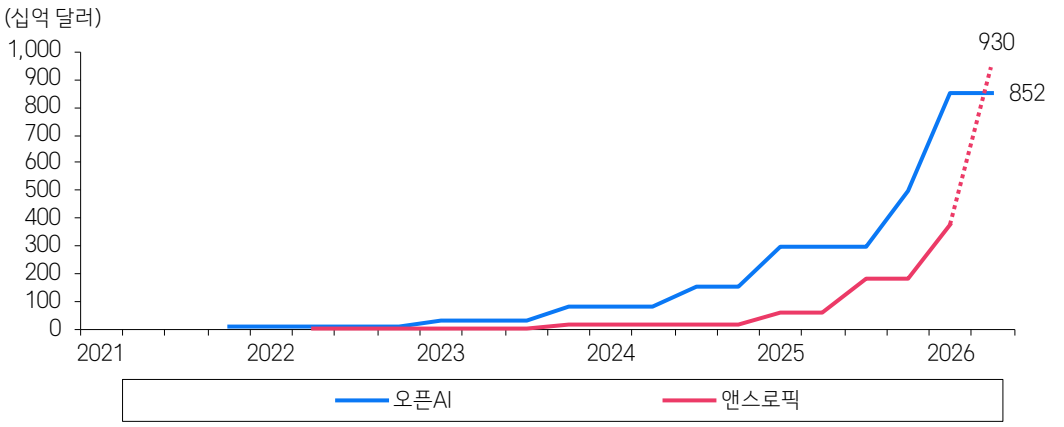
신규 펀딩 라운드가 마무리될 경우 Post Money 기준 밸류에이션은 9,300억 달러다. 오픈AI의 8,52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8,000억 달러 기준 제안은 거절하고 9,000억 달러 기준 제안을 받아드렸다는 뉴스 플로우 속 숫자가 주는 상징성도 고려했을 것이다. 공동 리드로 언급된 Dragoneer Investment, Sequoia Capital, Altimeter Capital는 각각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오픈AI의 주요 투자자다. 복수의 프론티어 AI 모델 기업에 대한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IPO 속도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오픈AI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과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초안을 준비 중이고 수 일에서 수주 내 비공개 제출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제출할 것이고, 목표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라는 내용이다.

보도 시점과 상장 목표 시점이 묘하다. 우선 스페이스X의 S-1 서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날이다. 시장 참여자에게 오픈AI의 상장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스페이스X IPO의 성패는 향후 상장할 프론티어 AI 기업에도 중요한 이벤트다.

오픈AI의 상장 목표 시점은 9월이다. 반면 앤스로픽의 상장 목표 시점은 4분기(10월)이다. 오픈AI 내부에서 빠른 상장을 원하는 샘 올트먼 CEO와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과 상장사의 공시 및 회계 기준 충족 준비 필요성을 강조한 사라 프라이어 CFO 간 이견 및 갈등 이야기가 있지만, 앤스로픽보다 먼저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앤스로픽과 오픈AI 밸류에이션 추이



참고: 최소 펀딩 규모로 논의되는 300억 달러 조달 시 Post Money 기준
자료: 언론 보도 종합, 각 사, 삼성증권

엔터프라이즈 AI 확대 전략과 컴퓨트 확보

프론티어 AI 기업의 현재 모든 초점은 엔터프라이즈 AI 침투다. 이를 위해 오픈AI와 앤스로픽 모두 컨설팅 기업, SI, PE 네트워크를 활용한 JV 형태의 신규 AI 서비스 기업을 설립했고, 매일 신규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오픈AI는 자체 통제력이 강한 배포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대상 장기 AI 운영 플랫폼 지원 및 프론티어 모델 로드맵 연계를 강조하고 있고, 앤스로픽은 SI, 컨설팅 생태계 확장과 중견기업 침투에 초점을 맞추며, 산업별 Applied AI 서비스와 현장 운영 효율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AI 서비스 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조직의 적극 활용이다. AI 산업의 경쟁 축도 단순 모델이나 API 제공에서 벗어나 배포 경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고객 내부 워크플로우에 깊게 침투해 운영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AI 에이전트를 운영 환경에 적용하며, 조직 변화까지 수행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고객의 환경에서 안정적인 배포, 통합, 운영 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은 컴퓨트와 인프라 역량이다. 특히 과거 오픈AI 대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캐파 전략을 가져갔던 앤스로픽에게 수요 급증 대응을 위한 캐파 확보는 너무나 절실하다. 스페이스XAI와 신규 컴퓨트 파트너십과 아카마이와 18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캐파 파트너십도 단기 캐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다. 구글, 아마존과 캐파 협력은 대규모지만, 장기 계획이다. 앤스로픽에게는 지금 당장 사용할 캐파가 필요했다. 실제로 앤스로픽은 스페이스X 협력 발표 직후 Claude Code의 5시간 한도 2배 확대, 피크 시간대 사용 제한 축소 정책 제거, Opus 모델의 API 제한을 상향했다. 이후 14일에는 주간 한도의 50% 증가도 발표했다(~7/13일)

스페이스X S-1 서류 공개와 함께 양 사 간 협력 확장 및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앤스로픽은 Colossus 1과 2 전반의 컴퓨트 접근권을 제공받고, '29년 5월까지(3년) 12.5억 달러/월을 지급한다. 램프업 기간(5~6월) 할인 적용을 고려해도 총액 400억 달러 이상 딜이다. 또한 양 측 모두 90일 전 통지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앤스로픽의 Chief Compute Officer인 Tom Brown은 6월 내내 Colossus 2의 GB200 캐파의 점진적 확대 계획을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오픈AI 공동 창업자이자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을 이끌었던 산업 내 주요 인물인 안드레 카파시가 앤스로픽 합류를 발표했다. 재귀개선을 기반으로 하는 R&D(사전학습) 팀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재귀개선을 활용한 모델 개선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모델 및 제품 출시 사이클은 더욱 짧아질 것이고, AI가 주도하는 다양한 산업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최근 발표된 앤스로픽의 컴퓨트 관련 계약

날짜	기업명	용량 규모	세부 내용
4/6일	구글(Google Cloud)	3.5GW	구글-브로드컴과 3.5GW 규모 TPU 계약 체결. 이후 4월 말 구글 클라우드 캐파 계약은 5GW로 확인(2,000억 달러 규모)
4/10일	코어위브	미공개	코어위브는 올해 말부터 Claude 모델 개발, 배포를 위한 컴퓨팅을 제공. 초기 단계적 인프라 도입 후 규모 확대 계획
4/20일	아마존(AWS)	5GW	향후 10년간 AWS를 1,000억 달러 이상 지출, 트레이니움 칩 5GW 규모 사용 약정 체결
5/6일	스페이스X(Colossus1)	0.3GW+	Colossus 1 전체 300MW 컴퓨트 계약. H100, H200, GB200 포함 22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 기반 클러스터
5/8일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미공개	7년간 18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 체결. 임대 GPU 종류는 미공개
5/20일	스페이스X(Colossus2 추가)	미공개	Colossus 1와2 임대를 위해 월 12.5억 달러 지급 계약 기간은 2029년 5월까지로 딜은 총 400억 달러 이상 규모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5월 2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2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